

“탕!” 계엄군 총에 스러진 소년 ... 중학생이 본 80년 광주 참상

맨부커상 한강의 5·18소설 ‘소년이 온다’ 주목

“흔한데는 몸이 없는데, 어떻게 눈을 뜨고 우릴 지켜볼까. (-) 눈을 감고 있던 외할머니의 얼굴에서 새 같은 무언가가 문득 빠져 나갔다. 순식간에 주검이 된 주름진 얼굴을 보며, 그 어린 새 같은 것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몰라 너는 멍하게 서 있었다. 지금 상무관에 있는 사람들의 혼도 갑자기 새처럼 몸을 빠져나갔을까. 놀란 그 새들은 어디 있을까.” (‘소년이 온다’ 중에서)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여섯 번째 장편 ‘소년이 온다’(창비·2014)가 광주의 5월을 다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무자비한 국가 폭력이 어떻게 어린 생명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를 추적함으로써, 대다수 어른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던 기존의 오월문학과 차별된다.

작가의 시선은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의 광주와 그 이후의 시간에 닿아 있다.

당초 이 소설은 80년 광주의 5월을 다뤄 참보문학블로그 ‘창문’에 연재할 당시(2013년 11월~2014

13세때 아버지 사진첩서 모티브

국가 폭력 맞서는 인간존엄 사유

년 1월)부터 독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소설은 엄혹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가의 부조리한 폭력에 맞서 시위현장으로 나서야 했던 ‘깨끗하고도 무서운 양심’을 절절하게 풀어낸다.

스토리는 5·18 당시 시위대 속에 있었던 친구의 시신을 찾는 중학생 동호의 이야기다. 동호와 함께 시위대에서 행진을 하던 정대는 계엄군이 손 총에 맞아 죽는다. 중학교도 못 마치고 공장에 들어가 동생 정대를 뒷바라지 하던 누나 정미도 그 봄에 행방 불명된다.

동호는 친구 정대의 죽음을 목격한 것을 계기로



도청 상무관에서 시신을 관리하는 일을 돕게 된다. 매일 같이 합동분향소가 있는 상무관으로 들어오는 시신들을 수습하면서 열다섯 어린 소년은 시신에서 ‘어린 새’ 한 마리가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최근 전화 인터뷰에서 한 작가는 작품을 쓰게 된 배경, 해외 번역 출간 등을 이야기했다.

“제가 작품을 썼다기보다 소설 속 주인공인 소년과 80년 광주를 체험했던 시민들이 작품을 썼다고 본다. 돌이켜보면 글을 쓰는 동안 저의 삶을 온전히 그분들과 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다.”

한 작가는 “소설 ‘소년이 온다’의 모티브는 열세 살 때 아버지(소설가 한승원)가 보여준 사진첩”이라며 “그 사진첩에는 80년 5월 광주에서 학생들 이들의 참혹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한 작가는 비록 심대했지만, 당시 그 사진첩을 매개로 인간의 존엄은 여파해야 하느니 속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녀가 인간의 폭력과 잔혹함, 그로 인한 상처와 회복의 문제에 전착한 이유이기도 하다.

작품은 폭력적인 진압을 핵심사건으로 서사가 전개되지만 이후 펼쳐지는 저항과 고문 등도 현장감 있게 다뤄진다.

한 작가 특유의 서정적인 문체와 밀도 있는 문장은 ‘현장감’과 맞물려 묵직한 울림을 남긴다.

이렇듯 소설은 무고한 영혼들의 말을 대신 전하는 듯한 진심 어린 문장들로 어는듯 그 시절을 잊고 무심하게 5·18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동시에 여전히 5·18의 트라우마를 안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한다.

한 작가는 “이 작품은 80년 광주의 이야기지만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특정 국가나 지역에만 한정할 수 없다”면서 “인간 존엄에 대한 보편적이면서도 근원적인 질문과 사유를 던져준다”고 강조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소설가 한강

출생 : 1970년 11월27일(광주)
학력 : 용문고교, 연세대학교국문학과졸
주요 경력
1993 문학사 회에 ‘열음꽃’ 외 4편의 시집 출간
1994 서울신문 신춘문예 소설 ‘봄’ 외 당선
1995 한국일보 우수소설가
1999 한국소설문학상
2000 문학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2005 이상문학상 대상
2007 서울예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현)
2010 동아-국립문학상
2015 황순원문학상
2016 서울예대 문예학부(장학) 소설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

주요 저서

소설 ‘마주의 사랑’(1995), ‘내 아버지의 열매’(2000), ‘그대의 차가운 손’(2002), ‘바람이 분다 가리’(2010), ‘희랍어 시간’(2011), ‘경은 사슴’(2013) 시집 ‘사람에 자여를 읽어 주었다’(2013) 동화 ‘내 이름은 태양꽃’(2002), ‘눈물상자’(2008)

소설 ‘채식주의자’

한강의 세번째 장편 소설. 2004년 제1회 창작비평에 처음 소개된 ‘채식주의자’는 채식주의, 종교전쟁, 나무 불꽃 등 소설 코드를 하나도 안덜한 연작소설집. 2007년 단행본 출간. ‘채식주의자’는 한 여자가 폭력을 거부하기 위해 육식을 끊어가고, 그러면서 죽음에 다가오는 이야기. 데버러 스미스의 번역으로 작년 1월 영국 모로모토 출판사에서 영문판 ‘더 베지터리언(The Vegetarian)’이라는 제목으로 출간



지난 2014년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작가가 아버지 한승원 작가와 어머니 임갑오 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창비제공>

“어린시절엔 동화적 몽상이 ... 이미 나를 뛰어 넘었다”

소설가 한승원이 본 딸 한강

“그 아이는 늘 혼자 생각하고 노는 것을 좋아했다. 어린 적에 안 보어서 찾으면 자기 방에 누워 있곤 했다. 내가 ‘거기서 뭐하니?’라고 물어보면 ‘공상을 하고요’라고 말하곤 했다. 돌아보니 그때의 눈빛은 꿈을 꾸는 모습이었다. 혼자만의 동화적인 공상을 즐기던 시간이 결국 오늘의 소설가로 키우지 않았나 싶다.”

딸 한강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묻자 아버지 한승원 작가는 그렇게 말했다.

한국 문단의 거장인 한승원 작가는 전화통화에서 “딸이 출국하면서 ‘마음 비우고 떠나니 아버지도 비우고 계세요’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수상 소식을 듣고 나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딸은 이미 나를 뛰어 넘었다는 대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흐뭇해했다.

한승원 작가는 딸의 작품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을 곁들였다. “한강의 소설을 읽어보면 굉장히 시적이고, 서정적이며, 신화적이다. 우리 세대와는 다른 빛깔과 특질이 있는데 섬세한 문체와 감수성을 토대로 한 작품의 아우라가 (비록 내 딸이지만) 참 매력적이다.(웃음)”

한강은 1970년 광주에서 태어났다. 중흥초등학교

교까지 다니다 1980년 1월 서울로 전학을 간다. 그 즈음은 한승원 소설가가 동신중학교 국어교사직을 접고 전업 작가생활을 하기 위해 상경을 한 시기다. 한 작가는 “딸은 광주의 5월을 서울에서 간접체험을 했다. 내가 광주에 내려가서 구해온 사진첩을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 당시의 강렬한 기억이 오늘의 ‘채식주의자’, ‘오월이 온다’와 같은 작품 장작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한강은 어떻게 문학의 길로 들어섰을까.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작가들의 방은 온갖 책들로 가득하기 일쑤다. 한강은 소설과 시 등 다양한 서적으로 채워진 아버지의 집필실을 보면서 작가로서의 꿈을 키웠다고 한다.

“사실 모든 예술가가 그렇지만 작가는 혼자만의 세계를 묵묵히 걸어가는 직업이다. 딸은 많이 새벽녘까지 타자기 앞에 앉아 소설을 쓰는 아버지(나)를 보면서 자랐다. 그 모습을 통해 작가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하는지를 체득한 것 같다.”

한승원 작가는 그러면서 “만약 아버지가 작가로서 존경받지 못한 존재였다면 결코 딸은 문학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문학상 수상 작가인 한승원은 그동안 ‘아제 아제 바라아제’, ‘추사’, ‘물에 잠긴 아버지’ 등 신화적이면서도 원형적인 작품을 썼었다. 두 부녀 모두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들로, 한국 문학사에서 매우 특이한 이력을 지닌 문인 집안이다.

“큰 아들 동림이도 소설가고, 딸 강이도 소설가고, 막내 아들 강인이는 서울예대 문창과를 졸업한 뒤 소설을 쓰고 있다. 자식들을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놔두는 것이 산 교육이 아닌가 싶다.”

그러면서 한승원 작가는 “내가 작가로 활동하던 70, 80년대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대부분의 작가들의 자녀들을 의대나 법대에 보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내 와이프(임갑오)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학을 하는 것을 지지 않았다”며 “오늘의 공을 아내에게 돌렸다. 이 또한 아내와 자식들이 남편과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았을 거라 덧붙이면서,

“나는 문학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작가적 생명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불도우지처럼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소재를 잡으면 끝맺음을 할 때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한 사람의 예술가는 거저 만들어지지 않는다.” /박성천기자skypark@

1969년 英 부커상 제정 ... 올부터 인터내셔널 부문 시상

맨부커상은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세계 3대 문학상 가운데 하나인 맨부커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맨부커상은 노벨문학상, 프랑스 공쿠르 문학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영어로 쓴 소설 중 수상작을 선정한다. 영어권 출판업자들의 추천을 받은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뽑으며 상금 5만파운드(약 8600만원)는 작가와 번역가가 나눠 갖는다. 이 상은 1969년 영국 부커사가 출판과 독서 증진을 위한 독립기금인 ‘북 트러스트’의 후원을 받아 제정됐다. 2002년부터 맨 그룹(Man group)이 후원하기 시작하면서 맨부커상(the Man Booker Prize)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당초 부커상은 영연방 출신 작가만을 대상으로

해 다양한 문화권의 작품을 아우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인터내셔널 부문을 신설해 격년제로 비(非) 영연방 지역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작가와 번역가에게 공동으로 상을 줬다. 그러다 올해부터는 인터내셔널 부문을 매년 시상하는 것으로 개편됐다.

지금까지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들의 면면을 보면 이 상의 권위를 짐작할 수 있다.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영화 ‘윈들러 리스트’의 원작 소설인 토머스 커널리의 ‘윈들러의 방주’, 리안 감독의 영화로 유명한 안 마텔의 ‘피어 이야기’, 국내에서도 인기를 끈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일본 출신 영국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의 ‘남아있는 나날’도 맨부커상 수상작이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번역의 힘 ... ‘채식주의자’ 영어로 옮긴 英 데버러 스미스 큰 역할

소설가 한강의 맨부커상 수상은 번역의 힘을 새삼 일깨워준 계기가 됐다. 지금까지 국내의 좋은 작품들이 해외에 알려지지 못한 것은 번역 때문이었다.

번역을 제2의 창작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어떤 이는 창작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 번역이라고 말한다. 이런 현실에서 2007년 출간된 한강의 ‘채식

주의자’가 오늘날 해외에서도 빛을 보게 된 것은 영국인 번역가 데버러 스미스(29)의 역할이 크다.

스미스 씨는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비롯해 ‘소년이 온다’, 안도현의 ‘연어’와 배수아의 ‘에세이스트의 책상’ 같은 동시대 한국 작품을 번역해 영어권에 소개했다.



‘채식주의자’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스미스 씨와 한 작가는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드백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번역자와 상호작용 외에도 좋은 출판사, 훌륭한 편집자와의 만남 등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것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얘기도. /박성천기자skypark@

광신대학교 대학원 2016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안내

전형일정

- ① 원서 접수 : 2016. 5. 30(월) ~ 6. 8(수)
- ② 전형일 : 2016. 6. 10(금)
- ③ 합격자발표 : 2016. 6. 14(화) ④ 등록기간 : 2016. 6. 14(화) ~ 15(수)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례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해당학과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실용음악학과(M.A.)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학위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일약문의 ▶ 0621 605-1115, 1024, 1021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유한바이오 클리코엔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UMNAVER 백세생활건강 ▼ 을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

말하는 법 1%만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된다면 교육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출 수 있습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우선하여 드립니다.